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4(土) 구름많고 한때 눈 -1/6°C 15(日) 맑음 -2/13°C

News

- 서울 주요 대학별 입시안 ②
- 다문화가정 언어 치료 ③
- WBC 2R 상대는 멕시코 ⑯

Books

- 신화, 전사와 문화 만날다 ⑧

Entertainment

- 전인화 '독한여자' 변신 ⑦

Holiday
• 할리우드 "한국영화 최고" ⑩

Wellbeing

- 생협 이용 착한 소비자들 ⑤



'사랑의 장기기증 전도사' 김재식 前 전남지사

“생명은 독점 않고 나누는 것”

“생명을 독점하지 말라. 공유하라.” 미수(米壽·88세)를 앞둔 노 도백의 경구다. ‘생명이 꺼지면 그만인 것을 왜 그리 잡착하느냐’는 질타다. 장기기증이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1994년 시신기증을 약속한 김재식(86·전 전남지사) 등의 인생철학이다.

김 응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한 달. 그 분의 뜻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평소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응은 “김 추기경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떠났다”고 존경을 표했다.

김 응은 김수환 추기경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1944년 김 응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가 학병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김 추기경을 만났다. ‘야. 자’하며 1년6개월 동안 김 추기경과 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김 응은 김 추기경의 선종 소식을 듣고 의외로 “담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응은 “죽어 육신을 기증하면 의학 발달에 일조하는 것이



지역사회 ‘큰 어른’ 김재식 전 전남지사는 15년 전인 1994년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그는 “생명을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라”며 장기기증이 활발해지길 바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故 김수환 추기경과 “야, 자” 하며 학도병 생활

15년 전 시신 기증…내 몸 내주면 사회가 건강

며, 아픈 이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며, 그를 통해 나 또한 두 번 살게 되는 것이다”며 장기 기증은 생명 나눔이다고 김 추기경의 뜻에 동의했다.

김 응은 15년 전인 1994년, 시신 기증을 서약했다. 장기기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때에 장성군민과 농민들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시신을 기증한 것이다.

“1987년이던가, 신문을 보는데 대학병원에서 시신 기증자가 없어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못한다는 거야. 가슴이 아팠지. 의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잘 길러야 아픈 사람들을 고칠 것이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결심했지. 내 몸을 내놓기로.”

김 응은 신문을 덮고 곧바로 전남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남대병원엔 그같은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년 뒤 1994년, 또 똑같은 뉴스를 접했다. 김 응은 또 총장에게 전화했다. 총장은 강정체(전 전남대 총장) 박사를 보

냈고 그에게 시신기증을 약속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몰래 아들 이름의 도장을 파 동의서에 찍었다. 그런 뒤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 했다. 아들은 흔쾌히 아버지 뜻에 동의했고 아들 또한 장기기증 서약을 하게 됐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김 응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아들과 조카, 강 박사에게 ‘당부말씀’이라는 자필 유언까지 남겼다. ‘시신은 사망직후 자체발고 인도해 각막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연락’이라고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조카 연락처를 아들보다 먼저 적어놓고 ‘지체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족 동의서 필요 없이 본인 유언만 가지고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 응은 “부모의 시신을 고이 모셔야 하는 풍습도 아름답지만,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가치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30여년 공직생활이 지역민 성원 덕분이라며

시신기증을 약속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묘에는

마리카락·손톱·발톱이 담긴 유발함과 자신의 저서가 묻히길 원했다.

여성은 이들에게 봉사하며 빚을 갚겠다고 고향 장성으로 돌아와 농부로 살고 있다. 김 응은 농도 전남의 경쟁력을 살 산업에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품질 좋은 쌀 생산에 전력했다. 일본에서 고품질 쌀 종자를 몰래 들여오는 등 ‘현대판 문익점’으로 열정을 바쳤다. 그 결과 전국 최우수 브랜드 쌀인 ‘한눈에 반한 쌀’과 ‘자운영 쌀’의 탄생이다. 그렇게 여성을 봉사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사후 자신의 몸까지 내놓은 것이다.

그는 뒷산 부친묘 아래에 자신의 뒷자리도 이미 마련해 놨다. 묘비명도 자신이 직접 새겼다.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 밀년을 헤매다가 아쉬움만 남기고 이 자리에 누워서도 농민의 행복과 풍년을 기원하노라’ /박정욱기자 jwpark@



무급 휴업 근로자들 임금 40% 국고 지원

노동부, 추경 반영

노동부는 13일,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당을 전액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무급휴업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를 바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례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가 합의해 휴업할 때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게되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최저 생계

비를 보전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교대제를 전환할 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3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北 미사일 대응 태스크포스 운용

외교통상부

km에 이르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정부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위험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동해상과 태평양 해상의 좌표를 거리로 환산한 결과 발사장으로부터 각각 650여km, 3천 600여km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단 로켓이 예고한 지점에 남아하면 북한은 로켓 사거리를 10여 년 만에 배 이상 늘렸음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꽃·샘·추·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꽃샘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4일 광주·전남은 구름이 많고 오전 한 때 눈이 조금 오겠다”고 13일 예보했다. 적설량은 1cm 미만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 광주시와 나주, 보성 등 10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상무지구 최고의 중심 상권!
22층 최고의 동양빌딩!
명원, 상가 잔여분 선착순 임대

90% 할인
중사 출입

상무지구 최고의 중심 상권!
22층 최고의 동양빌딩!

명원, 상가 잔여분 선착순 임대

동양건설 062-385-7777, 373-5990